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례가 30%

전문 성폭행 피해 상담 기관으로 문을 연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외로 상담이 많이 들어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행 실태를 실감하게 한다.

성폭력상담소 개소 5일만에 상담 1백건

취학전 어린이를 포함한 국고 여학생들이 입은 성폭력 피해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문을 연 한국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입법 추진 여성의전화 공청회 마련

성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82년 발족 이래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성폭력 문제를 상담해 온 여성의 전화(대표 김계정)는 18일 오후 2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지하강당에서 '성폭력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현행 형법, 정조에 관한 법률 등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규제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이날 공청회에선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한우섭·'여성의 전화' 중앙위원) △성폭력의 사회적 원인과 정책방향(지은희·민중당 여성위원) △현행법의 한계와 보완책(이종걸 변호사) 등이 발표되고 이어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상담소(대표 최영애)에 접수된 상담 1백여건 가운데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 상담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6살 난 여자어린이는 직접적인 성폭력은 아니었지만 성추행으로 충격을 받아 어머니가 면접상담을 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학교 또는 집·집근처 등지에서 성폭력·성추행을 당한 피해를 상담해왔다. 형제나 삼촌 등에 의한 근친상간 피해 상담도 있었다.

상담간사 이미경씨는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 상담이 이처럼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성교육 부재와 함께 음란만화·비디오 등



“성교육 부재·음란비디오등 범람 탓” 올바른 성 인식·강간예방교육 절실

이 범람하고 있는 탓이 크다"면서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와 가정에서 강간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상담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혼인을 빙자한 성폭력 피해, 직장 상사의 성폭력, 이웃이나 친척 또

는 불량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상담 등도 많은 편이라고 상담소는 밝혔다. 모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도 많지만 이웃이나 친척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가 많은 현실은 강간 예방교육 등이 절실히 보여준다고 상담소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상담소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상담사례는 15~20건.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출신의 여성학 강사들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학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폭력상담소를 개설준비 작업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상담이 들어오

기 시작해 17일 현재 상담건수는 무려 1백여건을 넘어섰다.

한 상담원은 그동안의 상담경험을 "그동안 말 못했던 것을 털어놓느라 많은 상담자들이 울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다. 성폭력 피해는 한 개인의 행·불행을 떠나 사회적으로 치유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문을 연 지 5일 남짓 밖에 안돼 상담사례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으나 상담소 개설 한달째가 되는 5월 중순께 상담사례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